

특별좌담

동북아 정세와 남·북한 통일

이질감 극복 위한 다각적 교류지향

본고는 국제학술회에 참가한 각국 학자들과 '동북아 정세와 남·북한 통일'이란 주제로 본보가 가진 기획좌담이다. 이들 통해 미국·소련·독일 3국이 남북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신: 본 좌담에서는 대화주제에서 오신 학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어갔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에 관한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반도의 분단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메트레이: '원치 않는 성전'(Reluctant Crusade)이라는 저서에서 저는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설명의 도움을 위해 먼저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결의했던 두 강대국을 생각해 봅시다. 당시 미국이 신탁통치를 사용하여 일본과의 전쟁을 마무리 짓고 있던 동안 소련은 유럽에 그들의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한반도에 진출하였습니다. 미군은 그보다 약간 후에 편의상 정해놓은 38도선의 남쪽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것이 영구히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분단은 그 시기 지정학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그것은 알타와 포츠담 회담의 내용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미로네크프: 제 견해로는 그 시기가 지역에 대한 소련의 이해는 일본과의 관계에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스탈린과 트루만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이후의 한국에게 자결권을 주어야 한다고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신: 이제까지의 의견은 우리가 한반도의 분단이 강대국들의 협상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38도선이 분단선이 된 원인을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메트레이: 이 점은 그 시기에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38도선의 결정은 더러스크(Dean Rusk)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a) 수도 서울과 b) 인천 부산항이 미국의 수중에 있어야 하며 c) 영국과 중국에 적절한 지역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신: 즉 아주 간단한 한 개인의 결정 하나가 큰 문제가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메트레이: 만일 38선이 없었다

동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덴스타인: 먼저 이것은 제 사건이며 독일 정부나 다른 기관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지켜본 바로는 거기에 약간의 순진함까지 있으며 학생들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 씀은 드리고 싶군요. 통일은 이 시기에 그렇게 현실적이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입니다. 한반도 내의 두 체제의 차이와 주민들의 생활의 여러 각도에서의 상이 점을 고려해봅시다. 정부가 내놓은 소위 '두 체제, 단일 국가의 개념'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군의 존재는 소련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4차 회담이 열려 토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현재의 남한의 실정을 살펴 보면 학생들이나 다른 일반인들이 북한의 실정에 대해 이해시킬 데와 창구가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북한 쌍방은 사실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전 전 경향을 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입니다. 이미 경제대 사학과생들이 북한 방문 신청을 했었고, 허가를 받았지만 북한측에 의해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트레이: 미국은 현재의 분위

경계력에 대한 두 체제 사이의 명백한 차이점과 이상적인 기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 정부간의 협상의 폭은 지속적으로 넓어져 갈 수 있으며, 통일은 실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건대 양측의 제안과 사실 사이에는 분명 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UN 가입과 같은 것은 작은 문제의 하나일 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느 체제가 통일 이후 더 우세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양측의 협상 과정을 보면 알 수 있고, 타협도 쉽지 않습니다. 독일의 통일에 관해 말하자면, 그 차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까. 동독이 그들의 체제를 스스

갈 수 있겠지요.

메트레이: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UN에서의 두 자리 의석 제의는 미국도 지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해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상대적으로 힘든 위치에 있는 다른 문제들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UN가입에 관한 것은 외형적인 이유일뿐입니다.

신: 그러나, UN에서의 두 의석의 의미는 분단의 고착화와 한반도의 분할을 뜻하지 않습니까? 물론 독일도 UN에서 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이덴스타인: 두 독일에서 두 의석의 문제는 통일 과정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실행 있었더라도 좋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 해봅시다. 지금까지 양국 국민들간에 어떤 접촉도 없었으며, 문제는 각기 이질화 문제를 어느정도 극복해 낼 수 있는가입니다. 독일에서는 두 의석제가 대화의 창구 역할을 했으며, 분단을 영구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신: 다음 주제로 가서 남북한

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유엔에서 '2개의 의석'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입장은 군사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북한은 남한의 군사적 상황이나 특히 틱스퍼트 훈련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민족주의 호소에 따른 외국세력의 간섭에 대한 반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 보아서는 민족주의만큼 신뢰성을 갖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신: 독일에 있어서 군사 협정

프로이덴스타인: 동서독은 군사문제에 대한 협상을 동맹국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협상의 권한을 갖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초 세계적 냉전 분위기로 흐렸을 때, 양측은 강대국들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양측간의 대화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 이제 처음에 제시했던 문제들에 대해 어느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론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메트레이: 한국의 학생들은 아마도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생애동안에 통일된 한국을 보겠다는 열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일반적 으로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듯이 이같은 생각은 너무 성급하지 않 나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인내심이 늘 것이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현실적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is)과 존재해야만 하는 것(ought to be)의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긴 마련입니다. 그들이 표면적인 것의 이면을 볼 수 있고, 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미로네크프: 한국의 학생들은 한국의 문제에 관한 여러 국가들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 은데 이번 학술회의와 같은 모임에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

것입니다. 또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인들은 행운아입니다. 한국인들도 이같은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 잠시 사회자의 입장을 벗어나 본인의 의견을 한마디 하겠습니까. 먼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이 민주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원주의가 통일의 과정을 주도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한의 두 사회의 대화 통로를 계속 넓힐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기자: 최근 한국에는 독일 통일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해 버리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지요.

프로이덴스타인: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독일의 형편에 맞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독은 그들의 체제를 버리고 더욱 낫다고 생각하는 서독의 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이같은 방식이 한국에서도 반드시 적용되리라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모든 한국인들이 민주적이고, 다원적이며, 자기 성취를 혼합할 수 있는 어떤 총체지요. 그러나 본인의 의견으로는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려면 국가의 기능이 사회 내에서 약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국가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고, 남한에서도 역시 국가가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된 한국은 사회에 대해 국가 기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 국가가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북한 사회는 그렇게 평등하지만 않고, 특권층도 존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남한의 학생들이 통일 한국을 위해 북한의 사회에서 체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미로네크프: 저 역시 한국의 통일의 방식은 독일의 통일의 방식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형태가 모색되어야 겠지요.

기자: 한미관계에 있어서 미국

의 영향력이 계속 한국에 미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로네크프: 글썽요. 소련은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관계에 대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군사적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라도 군비축소는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신: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같은 군사적 관계는 한소관계의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점차 축소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좌담을 마치고 하

요. 아주 진중한 의견들을 제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자◆

제임스 I. 메트레이

(미국, 뉴멕시코대학 교수)

유제니 G. 미로네크프

(소련, 과학아카데미 유럽연구소 부소장)

로라트 프로이덴스타인

(독일,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사 회: 신정현 교수

(정경대 교수·정치학)

때: 9월20일 오전 10시

곳: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기록·정리: 최성호 기자

번역: 이동선

<국제평화 연구소 연구원>



신정현...남한은 지속적인 민주화 노력 바탕으로 다원주의 시도해야
통일 문제에 진지한 것 같으나 통일지향적 시민 투옥...프로이덴스타인
메트레이...한국인이 우리를 원하는한 미군은 계속 주둔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 위해 군비축소 선행되어야...미로네크프

요. 정부는 통일 문제에 관해 무

척 진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

전히 통일에 활동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들을 감옥에 넣고 있습니다.

신: 지금까지 정부는 오랫동안

통일 정책에 그렇게 열성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

정부가 그렇게 주길 바라는

비정부 주체들이 과격해졌을 거

라고 봅니다.

미로네크프: 한국 정부는 북한

의 제의를 눈여겨 보고 있지 않

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한반도

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는 것

을 이야기하고 싶군요. 사실 미

노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그

들을 필요하다고 느끼는 한, 미

군은 계속 주둔할 것입니다. 그

리고 한반도 통일 논의에 있어서

남한의 입장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 체제의 다른

체제에 대한 흡수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한반

도 국민들의 자결권에 관한 문제

이기도 하죠. 그리고 학생들은

통일에 관한 그들의 주장을 조금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

에게는 비록 옳지 않은 일일지라

도 충분히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사회,

로 버리고 서독에 통합되었으니

말입니다.

신: 한국의 UN가입에 관한 북

한의 입장은 두 체제, 단일 의

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

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입장은 어

떨까요?

미로네크프: 유엔에서는 한국

의 두 대표를 포함한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라온데이를 방식의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두 개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공식적인

성격에 어울리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중국 문제도 같이 풀어 나

의 군사력 균형과 군비 축소 문

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북한의

군비 축소는 신뢰구축, 군축회담

에 관한 제의가 다음 주제입니다.

미로네크프: 제가 관찰한바로는

양측의 제의는 계속되고 있지

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에 관한 문제

는 한걸음 한걸음씩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력이나 사회

행사되어서는 안되며, 군에 관한

문제는 시민이 풀어야 합니다.

메트레이: 저는 여기에서 북한

이 민족주의에 대한 호소를 제

하고는 모든 면에서 불리한 입

장에 매우 유리할 것 같습니다.

프로이덴스타인: 오는 10월3일

은 통일 독일이 탄생하는 날입

니다. 그리고 그날은 한국에서 아

장 큰 명절의 하나인 추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 아주 좋은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세계의 어느 누구도 자유나 자유

로운 선택 그리고 개인의 자아실

현 보다 국가의 이해를 중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

각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단

순한 독일의 통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삶을 향유하는

진정한 기회는 장애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랜드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와, 남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야 바로 이랜드사람입니다.

매년 100% 이상의 성장, 대기업의 수준을 넘어서는 신입사원 선발, 5년 후에는 10대기업군에 진입할 것이라는 포부는 '신화를 창조하는 기업'이라는 별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어 왔으며 지금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오늘의 그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1. 우리는 하나인 일에서는 제한 되어 있으나 동시에 피조세계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는다.
2. 생각하기에 따라 사람의 가능성은 크게 틀려진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만큼 가능하다"
3. 우리는 어려운 이유를 찾기보다는 가능한 방법을 먼저 찾는다.
4. 한일 이유가 될 필요도 없이, 필요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
5. 우리는, 장애물이란 타인의 기회를 막고 있는 우리만의 전통을 믿음 알고 있다.

6. 세가지 두려움 - 거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책망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 - 은 우리에게 출발점과 출발이유를 분명히 해준다.
7. 진정한 기회는 장애물이 있는 곳에 있다.
8. 가장 큰 적은 자기요. 자기계한이다.
9. 도전, 개척정신 (Challengership) 은 긴 인생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최후의 가장 큰 증거이다.
10. 능력있는 사람이란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11. 역사는 자신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주도해왔다.
12. 진정한 믿음이란 최선의 노력을 뜻한다.
13. 되게할 방법을 찾으면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30년을 함께 일해왔, 그곳이 바로 이랜드입니다.

이랜드 가족은 앞으로 5차례에 걸쳐 그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5일 주간에 90도 한바퀴 3차 인원선발 광고를 게재하겠습니다.

이·랜드

E·LAND
(주) 이랜드

HUNT
(주) 힌트

SHANE
(주) 셰인

Leonardo Ferre
(주) 레오페레

Brenntano
(주) 브렌타노

Brenntano
(주) 브렌타노

Teresia
(주) 테레시아

Scofield (주) 스코필드

UnderWood
(주) 언더우드

GEROLAMO
(주) 게롤라모

LLOYD
(주) 로이드

Brenn Apparel
(주) 브렌아퍼럴

Underwood Construction Co.
(주) 언더우드건설

